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정균학사무관

“ 끊이지 않는 황진이 열풍 ”

황진이(黃眞伊)

조선의 3대 명기인 「부안의 이매창」 「흥원의 흥랑」 그리고 「송도의 황진이」 부안기생 매창과 어울려 단지 증일 술마시고 시를 주고받은 허균과의 로맨스도 있었지만 어찌 희대의 명기 황진이의 역천의 인생에 비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책을 통해서 또는 구전을 통해서 등등 남녀노소 불구하고 황진이란 이름씩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6.25때 월북한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는 북한작가로는 최초로 2004년 19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 이외에도 요즘 뜨고 있는 작가 전경린 등 10여명의 국내작가에 의해 소설로 엮어져 읽혀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황진이에 대한 소설이 만화책으로 엮어져 읽혀진다 하니 과연 황진이는 어떤 인물이기에 사백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중종때의 송도(지금의 개성)기생으로 정사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여러 야사의 내용을 추정해 보면 중종 초기에 태어나 중종 37년경에 죽었으니 미인단명(美人短命)이란 말이 있듯이 40세 전후인 듯하다.

꽃향기 진동하는 봄날 아지랑이가 봄기운을 등에 업고 피어오르는 사월 개성의 송악산 밑 병부교 아래서 겨울내 묵었던 빨래를 하고 있었던 처녀가 있었다. 성은 진이요 이름은 현금이고 나이는 방년 19세인 농익은 처녀인 주막집 주모의 딸 진현금. 황별감의 아들이 병부교를 지나가다가 빨래하는 여인 현금을 보고 마음에 두어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서 다리 위를 서성거렸다.

어느덧 해거름이 되어 현금도 빨래를 챙겨 일어설 무렵 사나이는 짹짜게 다리 아래로 내려가 현금을 농락하고 덤뻐다.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

이름하여 교하정사(橋下情事)라고 할까 훗날 소과(小科) 사마시에 급제하여 황진사가 된 그 묘량의 청년과 주막집의 주모의 딸인 진현금과 다리 밑에서 정사하여 태어난 이가 바로 희대의 명기 명월 황진이였다.

천기인 기생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을 비웃고 구역질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현철한 심경을 달에 견주어 기명을 명월(明月)이라 이름 지었던 황진이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잡배까지 상대해야 했던 천하의 천하 기생신분으로 당대의 일류명사들과 정을 나누며 술한 로맨스를 뿌린 황진이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읽고 시, 서, 음률에 뛰어났으며 출중한 외모로 무릇 사내들을 떡주무르듯 했던 황진이

서열로 태어나 받은 양반이요 받은 천민인 황진이



“ 끊이지 않는 황진이 열풍 ”

황진이(黃眞伊)

조선의 3대 명기인 「부안의 이매창」 「흥원의 홍랑」 그리고 「송도의 황진이」 부안기생 매창과 어울려 단지 증일 술마시고 시를 주고받은 허균과의 로맨스도 있었지만 어찌 희대의 명기 황진이의 역전의 인생에 비할 수 있겠는가.

어느날 자신을 짝사랑하여 가슴만 태우다 상사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간 옆집총각의 상여를 총각 친구들이 일부러 황진의 집 앞을 지나도록 하였는데 상여가 땅에 붙어서 꿈쩍을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입었던 노랑회장저고리와 연분홍치마를 벗어주어 총각의 상여위에 덮어주었다. 총각의 상여는 고맙다는 듯이 스스로 움직여 구슬픈 노랫소리에 쌓여 북망산으로 갔다.

이 일이 있던 뒤 황진이의 철학과 인생관은 갑자기 변해버렸다. 자기의 고운 살이 닿은 옷으로 총각의 관을 덮어주었으니 이미 자기의 혼과 육신을 다 바친 것이었다.

죽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저승길로 가지 않으려는 풀무도가니 같은 총각의 뜨거운 격정이 그로 하여금 온 살과 혼을 다 바치게 한 것이었다.

이쯤 되었으니 한 사내를 위하여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뒷동산의 밤송이 때가 되면 저절로 벌어져 터지듯 진이의 나이도 19세가 되어 아리따운 살결은 더욱 고와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양반들의 세대에 반항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고뇌와 번민 끝에 어느날 진이는 고을에 가서 기안에 몸을 박았다. 이때부터 황진이의 역전(逆千)은

시작되어 많은 남자들을 후렸다. 서울 종실양반에 벽계수(碧溪水)라는 전주이씨가 한사람 있었다. 벽계수란 나라 임금의 일가로 벼슬이 정사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벽계수는 글 잘하는 문장가인데다가 시조와 풍류를 좋아했고 거문고도 잘 타고 통소도 잘 불었다. 그러나 벽계수는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었지만 자기 정실부인 외에는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

벽계수의 친구 한사람이 송도유수가 되어 내려갔는데 벽계수는 가을에 송도구경을 한번 가겠노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 송도유수는 중추명월 달 밝을 때 꼭 와달라고 답장을 해보내고 벽계수가 내려오면 황진이를 시켜 벽계수를 후려 보겠냐고 물었다.

‘과거도 못하고 임금일가라는 덕에 벼슬쫓가리를 얻어 한 그까진 고리타분한 남행 부스러기를 후려 내서 무얼합니까’ 진이는 비웃어 코대답한다.

과연 추석 때가 되었다. 벽계수가 송도유수에게 미리 연통하고 나귀를 타고 개성으로 내려왔다. 벽계수는 사백년 전 예 도읍지를 돌아보며 무상에 젖어 가을 풀 우거진 만월대를 끼고 도는데 어느덧 석양은 지고 만월대위에는 중추의 밝은 달빛이 휘영청 비치기 시작했다.

그때 별안간 청아한 여창의 목소

리로 시조 읊는 소리가 맑고 깨끗한 가을바람 속에 실리어 구슬을 바수듯 흩어진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찌리” 보통의 노래가 아니었다. 시조에서 부른 그대로 달빛만이 만월대에 가득하다. 벽계수도 황진이의 시조를 통소로 회답한다.

말고도 청아한 통소소리는 부어내리는 달빛을 뚫고 가을 찬 공기를 헤치면서 구름 밖에 솟구친다. 진이도 놀라고 벽계수도 놀랐다. 두 사람은 달이 서산에 기우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통소를 불어 길고 긴 가을밤을 드새 우고야 말았다. 마침내 벽계수는 황진이에게 일년 이상을 고향되고 말았다. 잘났다는 못 사나이 들을 삶아내고 콩 주무르듯하는 황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처연한 요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당대 도덕가에 쌍벽이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불교로 삼십년 수도를 해서 살아있는 부처가 다 되었다는 지족화상이요. 한사람은 성리학으로 득도를 했다는 화담 서경덕 이었다. 황진이는 지족화상을 후려칠 요령으로 천마산 아래 지족암을 찾았다. 불교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승유억불정책의 일환으로 기세가 많이 꺾였지마는 일반으론 은연히 큰 세력을 잡았고 학문과 도덕이 높은 중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중에 지족화상은의 명성은 닭 속에 학의 존재였다. 지족을 가르켜 곧 부처라 하고 성인이라 떠들었다.

진이가 절에 가서 지족을 찾으니 지족은 아니 만날 수 없었다. 삼십년을 벽을 향해서 득도했다는 지족이니 아무리 천하절명의 황진이인들 단번에 그를 손아귀에 넣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스님. 삼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팔정도란 무엇입니까”

삼보란 佛, 法, 僧을 말하고 팔정도란 살생을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망어하지 말라, 높고 큰상에 올라앉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화려한 머리나 낙영을 두고 달지 말라 하는 여덟가지 경계를 잊지 말고 행하는 것이 팔정도라는 것이다.

밤은 깊었다. 산이 높고 골이 그윽하니 절속은 더욱 한가로웠다. 다만 들리는 것은 전각 앞에 달린 풍경이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땡그렁 거리며 맑은 소리를 낼 뿐 산사에는 지족과 다만 진이만 있었다. 진이는 몸이 고단하다고 누워버렸다. 지족은 별을 향하여 참선을 하고 있었다. 황진이는 코를 끌고 적삼 고름을 늦추었다. 고단한 듯이 몸을 한번 굴렀다. 고름이 풀어지며 하얀 젓가슴이 드러났다. 지족은 무심코 코고는 진이를 힐끗 돌아본다. 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된 지족은 황망히 다시 벽을 향한다. 한식경이 지났다. 여전히 코를 끌고 젓가슴을 흐트러뜨린 진이는 또 한번 몸을 굴렀다. 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단단히 마음먹은 지족이건만 자기도 모르는 곁에 뒤를 돌



“ 끊이지 않는 황진이 열풍 ”

황진이(黃眞伊)

조선의 3대 명기인 「부안의 이매창」 「흥원의 흥랑」 그리고 「송도의 황진이」 부안기생 매창과 어울려 단지 증일 술마시고 시를 주고받은 허균과의 로맨스도 있었지만 어찌 현대의 명기 황진이의 역천의 인생에 비할 수 있겠는가.

아보아 버린다. 흐트러진 검은 머리, 드러난 젓가슴. 젊은 여자의 농익은 살 냄새는 여지없이 지척에서 지족의 눈과 코를 찔렀다. 지족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지에 맥이 탁 풀렸다. 다시 벽을 향하려 했으나 목고개는 말을 듣지 않았다. 지족은 진이의 얼굴을 도둑질해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가무스름한 눈썹과 그은 듯한 살쩍은 알뜰도록 어여뻤다. 붉은 입술이 탁터지며 진이는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이내 몸을 비틀어 기지개를 켜다. 진이의 다리는 어느 틈에 지족의 허리를 감았다. 지족은 “십년공부 아미타불”을 부르며 이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다.

지족을 쓰러뜨린 황진이는 천하에 인물 없음을 탄식했다. 파괴된 지족화상을 뿌리치고 울적한 마음에 고려왕조의 발생지인 성거산을 구경하고 박연폭포를 찾았다. 한줄기 급한 폭포가 소리쳐 떨어지니 구름과 하늘이 뒤엉켜 움직이는 듯하고 튀는 물방울은 안개인양 눈인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선비로 이름이 높은 화담선생을 서사정에 찾았다.

갈건에 배 옷 입은 선생은 혼연히 진이를 대했다. 화담을 찾은 진이는 “이 목구비야 사람 같지마는 성현의 말씀을 좇지 못하는 소녀가 어디 사람입니까”

“내가 모르는 말이다. 마음이 곧 사람

이다. 우러러 하늘을 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래로 땅에 서서 남에게 놀릴 것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람이다. 네 아무리 천한 계집이라 하나 네 몸이 천하지 네 마음만은 천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당당한 한개 사람이다.”

선생은 순순히 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진이의 마음속은 어떠한 광명을 보는 것 같았다. 지족화상보다 한층 윗길 인물인 것을 안 진이는 이말을 듣고 선생에게 진실한 참마음으로 두 번 절을 올렸다.

“송도에 삼절(三絶)이 있으니 선생님 의 도덕과 박연폭포와 그리고 제가 한몫 낄 수 있을까 합니다”

모든 도학자와 문장 재사를 떡 주무르듯 한 진이는 다시 더 세상에 구하고 시험할 것이 없었다. 나머지 젊음을 푸른 산과 맑은 물에 바치고 싶었다. 이렇게 명산 명소를 유람하며 한평생을 보낸 진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사십 쯤 해서 병은 골수에 깊었다. 다시 소생이 되어 살아나지 못할 줄을 안 진이는 이웃사람에게 유언을 했다. “내가 죽거든 흙에 묻어 장사지 내지 말고, 그대로 산에 내버려서 오작의 밥이 되게 해주오.”

진이는 영혼이 없어진 뒤엔 살과 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진이는 고향 가까운 장

단에서 마지막 숨을 지었다. 진이가 죽은 뒤에 동리 사람들은 장단 널다리에 묻어 주었다. 그래도 황진이의 유언대로 시체를 들가에 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황진이가 죽은 뒤에 진이의 무덤 앞에는 석벽 사이에 약수 우물 하나가 솟구쳐 솟아났다. 이 우물은 석벽 사이에 입을 대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었다. 바가지나 두레박질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좁았다.. 이 우물 이름을 입우물이라 불려왔다. 우물 형국이 바로 여자의 분비기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이가 죽어서도 못 사나이들을 개 쿡구 명으로 알고 장난해 보자는 게라고 떠들었다. 어떤 든 무수한 사나이들은 황진이의 무덤 앞에 입우물 약수를 한 모금쯤 얻어먹으려고 진이 무덤 앞에 너부죽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율곡 이이와 시대를 같이 했던 천재시인 백호 임제는 황진이를 만나보려고 일부러 개성까지 내려갔다가 황진이가 여러해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진이의 무덤을 찾아서 술 한잔을 붓고 이런 시를 읊어서 진이를 조상하였다.

청초靑草 우거진 곳에 지는다 누웠는다
홍안紅顏은 어데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설위하느라.

30대에 요절한 천재 시인 임제도 사무치도록 마음속으로 황진이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다.

진이가 떠난지 사백여년이 지난 지금 과연 못 사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매혹시킬 현대판 황진이는 없단 말인가

황진이의 얼굴은 보지 못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알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이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매를 고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얼굴에 찍어 바르고

그리는 화장품도 있을 리 만무했을 텐데 왜 조선팔도 남자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지 달은 등글어도 보름을 넘지 못하고 중천의 태양도 정오가 지나면 기울기 시작하고 내 인생도 이제는 기울어져가는 이때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로운 봄바람에 눈꽃 흩뿌리는 이 시절에 황진이의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밤이 지새도록 술잔기울이고 시조를 읊고 싶은 것은 정녕 허망된 나만의 꿈이란 말인가

오늘 나는 춘흥을 이길 수 없어 기어코 꿈속에서라도 만나보리라.

사랑하는님과 함께 봄날의 밤이 짧음을 탄식하며 노래한 아래 시 한수도

진이의 애뜻한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들여내어
춘풍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드란 꿈이꿈이 피리라

천지간에 고운 것이 사람이요 사람보다 고운 것은 말이고 말보다 더 고운 것은 글이요 글보다 더 고운 것은 시라 했다.

진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시조문학을 찬란하게 꽃피운 이매창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님을 향한 최고의 시조, 인터넷 시대를 사는 네티즌들조차도 그리운 님을 그리는 망부곡으로써 이 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선정한 매창의 시를 소개한다.

이화우(梨花雨) 훗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비록 시흥은 끝났어도 그 뜻은 무궁무진하다 했으니